

2013년 감사 보고서

- 감사일시 : 2014년 1월 8일(수) 11:00~ 16:00
- 감사장소 : 광주환경연합 사무실
- 감사내용 : 2013년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의 사업 및 재정
- 수 감사자 : 임낙평 공동의장, 최지현 사무처장, 박상은 팀장

다음과 같이 감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14년 1월 8일

감사 오원만 오원만

감사 김정민 김정민

감사보고(안)

■ 사업 부문

◦ ‘탈핵 및 에너지전환 태양도시 만들기 사업’, ‘탈토건 생태운동 강화’, ‘활동 역량 및 조직 강화’가 중점사업이었습니다. 중점사업에 따른 세부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예컨대 기후보호를 위한 시민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지도자 양성 교육이 수행되었고, 이후 수료자들의 지속적인 모임과 활동이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그렸습니다. 기후보호 이슈는 국내와 지역만이 아니라 국제적 현안인 만큼 동아시아기후 포럼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활동은 긍정적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와 지자체와의 교류 및 공동의 의제를 정하여 토론하는 프로그램 등의 성과가 예입니다. 다만 토론이나 공유로 그치지 않고 제도의 변화나, 실제적 실현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탈핵에 대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 하고,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캠페인, 강연회, 영화상영회 등의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활동 또한 눈에 띕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지역 학생과 우리지역 학생들이 함께 교류 교감하고 미래세대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에너지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는 등의 시도도 의미가 컸습니다.

◦ 그러나 탈핵과 에너지전환 등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뿐더러 최근 수립되고 있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핵발전소 확대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시민 생활속에서 공감하도록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책부문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정부쪽만을 향하지 않고,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공감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이며 지치지 않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가 폭로되는 감사원 발표가 연이어 있었고, 녹조문제 등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가시화 되었습니다. 감사원 발표 내용과 사업과정에서의 각종 비리가 밝혀지게 된 것은 그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4대강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응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질악화나 하천 안전 문제, 농지 침수 등으로 인한 농민피해 등은 그간 환경연합이 우려하고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대응활동을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안 촉구 활동은 긍정적입니다. 향후 4대강사업이 바로 잡히고 정부차원에서 합당한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 ‘활동 역량 및 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회원모임 활성화, 위원회 활성화, 임위원

확충, 활동가 역량 강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곡양산 모임 등이 정착되었고 다양한 회원모임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는 등 회원모임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량있는 새로운 활동가들이 충원되었고, 지도위원도 확대 되는 등 조직을 강화하기 노력과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위원회 활성화 등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 청년학생 참여를 활발히 하고, 회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생활환경 부문에 대한 환경운동이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환경연합의 활동이 회원 가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대형 국책사업과 난개발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민감한 영역에 대한 이슈를 발굴하고, 개선책을 마련해나가는 활동을 제안합니다. 어린이 유해환경개선,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책 등을 비롯하여 공공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이해당사자의 민원을 이유로 방기하는 것을 시민단체가 강하게 개선을 주장하는 등 공공성, 생활형 이슈에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활동, 동네단위의 과제가 주어지고 성과를 만들어 가는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 2013년에도 많은 활동과 성과를 이어왔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등은 환경연합 성원들이 애쓴 결과입니다. 활동의 성과가 많이 홍보되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회원 참여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회계 부문

◦ 회계의 관리

광주환경운동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광주환경연합 고유 및 일상 사업에 대한 회계이며, 특별회계는 4대강사업 대응, 탈핵운동과 같이 여러 단체가 재정을 분담하며 연대 활동사업과 퇴직금 적립 등에 대한 회계입니다. 회계의 구분은 그 사업목적 등에 의해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고 회계별로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적립에 관한 건은 중간정산 제약 등 자금사용제한이 제도화 되어 있는 만큼 퇴직연금 가입 등을 통해 퇴직금 적립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운영할 것을 권합니다.

◦ 일반회계에 대하여

(1) 결산요약표

구분		금액	비고
I. 당기수지	회비 등 당기수입	307,552,650 원	
	경상비, 사업비 등 당기지출	303,979,714 원	
	재정수지	(+)3,572,936 원	
II. 기초이월현금		37,041,448 원	2012년 잔액
III. 기말현금잔액		40,614,384 원	2013년 잔액

광주환경운동연합의 2013년 회비, 후원금 등을 통한 당기수입은 307,552,650원, 경상비와 사업비 등 당기지출은 303,979,714원으로 재정흑자 3,572,936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전기이월금을 포함하여 차기(2014년)로 이월될 금액은 40,614,384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2) 분석내용

가. 2012년 대비 변동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수입측면에서 회비, 후원금, 사업비 수입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 지출측면에서는 경상비 중 인건비와 후생복지비가 감소하였습니다. 경상비의 감소는 활동가 수 감소 등의 변동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향후 인력충원과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경상비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회원 및 후원자 확대를 포함한 수익다변화 등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나. 회원수 및 회비 추이

최근 5년간의 회원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회원수 및 1인당 평균회비수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회원 (명)	자동이체	1,261	1,704	1,649	1,583	1582
	지로납부	54	46	49	40	42
	직접납부	126	182	138	149	137
	소계	1,441	1,932	1,836	1,772	1,761
연 총 회비수입(천원)		125,132	148,252	160,905	159,293	161,608
1인당 평균 연간 회비(원)		86,837	76,735	87,639	89,894	91,771

최근 5년 회원수의 추이를 보면, 2010년에 1,900명이 넘는 회원으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회비 총수입은 증가 추세입니다. 일인당 평균 회비수입도 증가하였습니다.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활동이 없는 회원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 일 것입니다. 이는 회원관리에 있어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능한 많은 시민들이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이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회원수의 감소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입한 회원은 회비납부와 환경연합 활동 참여 등 회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 경제현황이 그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회비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환경연합 성원들이 활동에 있어서나, 회원 관리 등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 기타

- 중점사업, 연속사업 사업분야내에서의 단위사업별 회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세부사업과 재정운영을 상호 평가 하였으면 합니다. 사업평가지 재정분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분석자료들이 향후 사업계획수립시 재정부분에 대한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확보와 운영에도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사업량과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입니다. 적은 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은 환경연합 성원들이 애쓴 결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의 재정은 회비 및 기부금 수입으로 안정화가 되어야 하는 만큼, 안정적 활동을 위해서는 회원을 확대하는 조직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